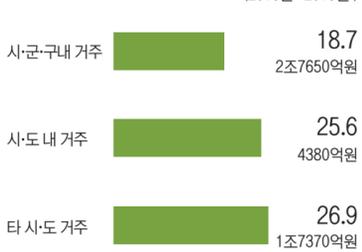


야금야금...전남 농지 외지인 보유 비중 늘었다

■전남 농지 지가 총액 (2019년 기준)



■소유자별 전남 농지 지가 상승률 (단위:%) (2016년~2019년)



2016년~2019년 3000ha 늘어 3.9% 증가... 현지인 3.4% 감소
 땅값 27조9000억 중 8조1990억 차지... 상승률도 현지인보다 높아
 “투기 근절 위해 농업회사 법인 설립 요건 개선” 농민단체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남 논·밭·과수원 땅값 3분의 1(29.4%)은 다른 사·도민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국 9개 도(道)와 특·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피낸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재광석·김부영) 연구보고서에 담겼다.

지난 31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전·답·과수원 토지의 지가 총액은 27조9060억원으로, 이 가운데 29.4%에 달하는 8조1990억원이 관외(타 사·도) 소유로 집계됐다.

전남 농지 지가 총액은 3년 전인 2016년(22조9660억원)에 비해 17.7%(4조9400억원) 올랐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도민 보유액도 6조4620억

원에서 8조1990억원으로, 26.9%(1조7370억원) 뛰었다.

전남 농지 땅값에 대한 외지인 보유 비중은 29.4%로, 전국 평균(25.0%)과 특·광역시 평균(24.7%)을 크게 웃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농지가 있는 사·군·구 또는 사·도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농지가격 상승률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땅값 상승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최근 3년 새(2016~2019년) 전남 농지 지가 총액 상승률은 ▲사·군·구 내 거주 18.7%(14조7900억원→17조5550억원) ▲사·도 내 거주 25.6%(1조7140억원→2조1520억원) ▲타 사·도 거주 26.9%(6조4620억원→8조199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농지에 대한 다른 사·도민 보유 면적은 같은 기간 3000ha 가까이 늘어났다.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로 비교한 농지 면적은 타

사·도 거주가 7만4778ha에서 7만7692ha로, 3.9%(2914ha) 증가했다. 반면 농지가 있는 사·군·구 안에 거주하는 이의 소유 농지는 17만1472ha에서 16만5645ha로, 3.4%(-5827ha) 감소했다. 같은 사·도 내 거주자의 면적은 3년 전보다 5.3%(914ha) 증가한 1만8002ha로 조사됐다.

정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지만, 전남 농지원부 등록률은 특·광역시와 9개 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경지면적 29만827ha(2018년 기준) 가운데 63.7%인 18만5146ha가 농지원부에 등록됐다.

전남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국 평균(71.1%)을 크게 밑돌고, 특·광역시 평균(71.2%)에도 못 미친다. 농지원부 등록률은 강원(80.9%), 제주(80.6%), 경기(76.1%), 경남(73.6%), 충남(72.9%), 충북(71.5%), 경북(70.6%), 전북(66.6%), 전남(63.7%)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지이용 현황을 보면 자경비율은 48.2%(14만76ha)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어 임대 12.2%(3만5374ha), 위탁경영 0.01%(20ha) 순으로 나타났고, 1.4%에 달하는 4014ha는 휴경하고

있었다.

자경 또는 임대 등 농지이용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경작확인 대상면적’은 1.9%(5662ha)에 달했다. 이 필지는 농지원부에 등록됐지만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걸 뜻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 농민단체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앞서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비판했다.

전농 측은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된 농지투기 부당이익 환수 계획은 말만 ‘환수’지 실질 대책은 없고 별칭 조항에 과징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업자 등이 무차별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어 농지투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전 신고제 도입, 벌금 강화 방안으로 농지투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껍데기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위한 절대농지 200만ha 유지·보전 ▲농지투기 이익금 전액 환수 ▲3년마다 농지 소유·이용 실태조사 실시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농지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기저효과’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 최대 증가

2월 광주·전남 산업 활동 동향

2월 광주 대형소매점 매출이 통계를 낸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소비가 급감했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인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1년 2월 광주·전남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광주 30.6%·전남 15.5% 증가했다. 광주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나온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올해 1월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대형소매점 매출이 전년보다 10.6%, 11.2%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회복세이다.

1년전보다 30.6% ‘2010년 이후 최대’... 전남 15.5% 상승
 광주 광공업 생산액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광주 백화점 매출은 전년보다 37.7% 증가했고, 대형마트 매출은 광주 23.1%·전남 15.2% 증가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액은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광공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울산(10.7%), 경기(7.8%)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1.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광공업 업종별 생산은 RV승용차·소형트럭 등 자동차(24.7%)와 냉장고·커피터·김치냉장고 등 전기장비(23.2%), 담배(125.5%)는 증가한 반면,

공기청정기·에어컨·압축기 등 기계장비(-24.3%), 음료(-57.1%), 식료품(-14.6%)은 감소했다.

전남은 공업용접착제·폴리에틸렌·아크릴레이트 등 화학제품(5.4%)과 물품취급용 크레인 기계장비(63.8%), 나프타·등유·솔벤트·부탄가스 등 석유정제(6.2%)는 증가했다. 반면 유조선·컨테이너선, 가스·화학운반선 등 기타운송장비(-25.8%)와 육상금속구조물·와이어로프 등 금속가공(-10.0%), 커피·가공해조류·치즈 등 식료품(-6.7%)은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채소·과일 수급 안정” 산지 모니터 요원 조직

농협 전남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 모니터 요원을 조직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함읍 지역본부에서 ‘전남 원예농산물 산지 모니터요원 발대식’을 열었다.

모니터 요원은 지역농협에서 경제사업 근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양파·마늘·배추·무·건고추·대파 등 노지채소류 6개와 과실류(배) 1개 등 대표 원예농산물 7개 품목을 담당한다. 파종기부터 출하기가

지 품목별 생산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수급대책 수립과 관련한 산지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산지 수급관측 활동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품목 특성별 맞춤형 조사를 할 예정이다.

박서홍 본부장은 “주산지 중심의 수급관측정보 강화는 수급 대책 추진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며 “농협 수급관측업무는 상호 보완하고 지역본부 산지 모니터링 활동 강화를 통해 전남 맞춤형 수급 안정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물 안전 ‘대국민 약속’ 결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가운데)는 지난 31일 반부패 청렴 개혁과 물 안전을 위한 ‘대국민 실천 약속’을 했다. 영·섬본부는 올해 지능형 안전장비 도입으로 물 안전을 강화하고 민원 부서장 답변제 등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전남신보, 올해 소상공인 5250억 보증 공급

금융 소외계층 만기 연장·상환 유예... 7월 비대면 보증서비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61.42 (-8.58)
↓ 코스닥	956.17 (-1.89)
↓ 금리(국고채 3년)	1.133 (-0.022)
↓ 환율(USD)	1131.80 (-1.80)

올해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25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설립 이래 연간 최대 규모인 9355억원을 지원하며 보증공급 누계 5조원을 달성했다. 3월 현재 도내 13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41%에 해당하는 5만3000개 업체가 재단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자금지원 규모를 1250억

원으로 확대했다. 보증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으로 통합신고센터 운영,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했다.

전남신보는 올해 금융 소외계층에는 보증만기 때 전액 연장 및 상환 유예 기회를 줄 방침이다. 오는 7월에는 모바일 앱으로 보증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보증 서비스를 출시한다.

도내 소상공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등 자영업종합지원서비스도 펼친다. 올해는 비대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특수채권(장기채권)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신세계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 원장 | 교정전문 이 기 현 | 김 고 운

www.ch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안 영 근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 종 훈

■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
■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CHONGSANG HOSPITAL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약품사 내과전문의의약품사
이 강 수 홍 순 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침단종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 원 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단중앙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 홈페이지 : www.cheomdanhosp.co.kr